

<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>

1. 글씨가 작아도 인쇄체같이 정확히 써 놓으면 누구든지 잘 알아보지만, 글씨를 크게 써도 제대로 써 놓지 않으면 몰라본다. 생각도 온전하게 해 놓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육신이 실천하게 해야 육신이 헛되게 고생하지 않고 희망으로 얻게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생각 때문에 육신만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.
2. 신령한 생각, 온전한 생각, 영원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육이 행하게 하여 생각도 천국이 되고, 육신도 유익이 되고, 영도 영원히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.
3.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깊이 수십 번씩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과 더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. 글도 더 좋게 쓰려고 한 번 더 쓰고, 두 번 더 쓰고, 열 번 더 쓰면 전보다 훨씬 좋게 써진다.
4. 월명동 야심작같이 다시 쌓을수록 더 좋고 이상적이며 절정에 도달하게 쌓듯이 생각도 더 깊이, 더 높이, 더 멀리 생각 위에 다시 생각하면 그와 같다.
5. 생각한 것이 하나님적, 예수님적, 성령님적 차원의 생각이 된다면 최고다. 만족이다. 절정이다. 정상이다. 꼭지다. 핵이다.